

백남준아트센터

2025. 4. 10. - 2026. 2. 22.



쉬운정보

전지적 백남준 시점



PLAY IT AGAIN, PAIK

《전지적 백남준 시점》은

우리가 백남준이 된 것처럼
그의 눈으로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백남준이 생각한 ‘시간’을 따라가 보는 전시예요.
작품과 인터뷰를 함께 보면서
백남준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봐요.

시간은 늘 똑같이 흘러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때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즐거울 때는 하루가 빨리 끝나고,
지루할 때는 단 몇 초도 길게 느껴지지요.
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참 다양해요.

백남준은 비디오를 이용해
이렇게 다양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전시에는 다양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어떤 작품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어떤 작품은 느리게 흐르지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작품도 있어요.

지금부터 전시를 보며
백남준이 만든 특별한 시간들을 경험해 보세요.

“여기 열두 개의 달이 있죠?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시간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백남준, 1967년 WNET 방송국 인터뷰 중에서

백남준아트센터 1층 안내지도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체험해 볼 수 있어요.



- 1 <비디오 상들리에 No.1>
- 2 <모음곡 212: 뉴욕 판매>
- 3 <TV 정원>
- 4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
- 5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
- 6 <달은 가장 오래된 TV>
- 7 <천왕성>
- 8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 9 <세 대의 카메라 참여>
- 10 <자석 TV>
- 11 <춧불 TV>
- 12 <TV를 위한 선>
- 13 <참여 TV>
- 14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
- 15 <TV 피아노>
- 16 <앨란과 앨런의 불평>
- 17 <피터 무어가 찍은 사진들>
- 18 <TV 물고기>

1 <비디오 상들리에 No.1 <넘버원>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89년

만든 재료 흑백 텔레비전 38대, 전구, 전선 등

천장에 여러 대의 텔레비전과 전구, 전선이 늘어져 있어요.

백남준이 텔레비전으로 만든 비디오 상들리에예요.

‘상들리에’는 천장에 다는 조명이에요.

보통 반짝이는 유리 장식이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은 전구를 쓰지만,

옛날에는 유리 장식 안에 촛불을 넣었어요.

그러면 장식이 빛나면서 아름다운 빛이 공간을 밝혀 주었지요.

지금은 무엇이 세상을 밝히고 있을까요?

백남준은 수많은 텔레비전 화면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밝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의 촛불 대신

지금의 텔레비전 화면으로 상들리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전선으로 장식했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밝혀 온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2 <모음곡 212: 뉴욕 판매>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75년에 처음 만들고, 1977년에 다시 만들
만든 재료	영상
영상 길이	8분 10초

<모음곡 212>은 백남준이 뉴욕에 살면서 만든 영상들이에요.
그중 <뉴욕 판매>는 뉴욕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 줘요.

영상에는 집, 미용실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텔레비전 모습이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광고도 나와요.

화면이 빠르게 바뀌고 신나는 소리도 나와서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어울려 사는
뉴욕과 닮아 있어요.

영상 속 모습처럼 우리 주변에도 텔레비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전을 자주 보지요.
우리는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3 〈TV 정원〉

- 만든 사람** 백남준
- 만든 때** 1974년에 처음 만들고, 2002년에 다시 만들
- 만든 재료** 텔레비전, 스피커, 나무, 풀 등

〈TV 정원〉은 백남준이 만든 특별한 정원이예요.
나무와 풀 사이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어요.

백남준은 왜 텔레비전을 정원에 두었을까요?
자연과 텔레비전이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뀌어요.
봄에는 연한 초록색, 여름에는 진한 초록색,
가을에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지요.

텔레비전도 비슷해요.
사실 텔레비전은 여러 색이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가 보는 화면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자연이 계절마다 색을 바꾸듯이,
텔레비전도 짧은 순간마다 색을 바꾸고 있는 거지요.

자연의 시간과 텔레비전의 시간을
천천히 걸으며 느껴 보세요.



작품을 둘러싼 하얀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정원을 산책하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4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

공연한 사람 백남준
찍은 사람 클라우스 바리시
찍은 때 1960년 10월 6일
작품 종류 사진

1960년에 열린 백남준의 공연,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공연에서 백남준은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부셨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의 넥타이를 자르고,
샴푸를 부어 머리를 감겼어요.
그런 다음 공연장을 뛰쳐나갔지요.

백남준이 떠난 무대 위에는
매캐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오토바이 한 대만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백남준은 자신의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관객들의 마음속이 확 풀리는
시원한 기분을 느끼길 바랐어요.

사진을 보며 그날의 장면, 소리, 냄새를
함께 상상해 보세요.



10분마다 스피커에서 공연에서 들렸던 소리가 흘러나와요.

5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63년에 처음 만들고, 1975년에 다시 만들

만든 재료 오디오테이프[▶]를 붙인 나무판, 카세트 재생기[▶],
오디오테이프를 문질러 소리를 내는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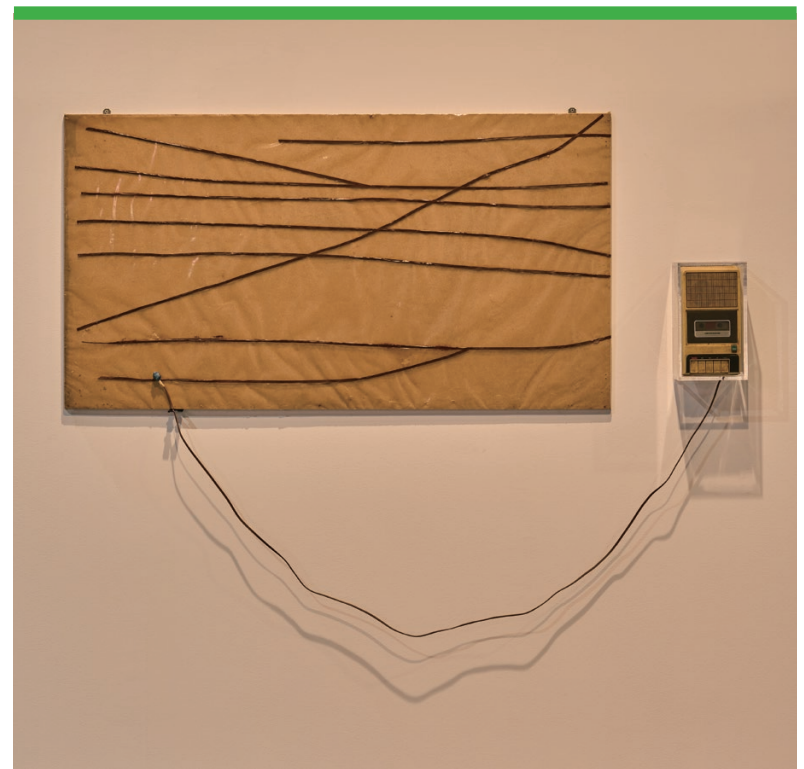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는 백남준이
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특별한 기계예요.
‘랜덤 액세스’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바로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음악이 녹음된 오디오테이프를 노래를 들었어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테이프를 앞으로 돌리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이 기계는 달라요.
백남준이 오디오테이프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판에 붙였기 때문이에요.

이 기계는 오디오테이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문지르는 방향과 속도에 따라 다른 소리가 들렸고,
듣고 싶은 노래에서 멈출 수도 있었어요.
아무 곳이나 문지르다 새로운 노래를 만날 수도 있었지요.

시간과 소리를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 오디오테이프 : 소리를 녹음하거나, 녹음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테이프.

▶ 카세트 재생기 : 카세트테이프를 넣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기계.
카세트테이프란, 오디오테이프의 한 종류로, 작은 플라스틱 상자 안에
오디오테이프가 감겨 있다.

6 <달은 가장 오래된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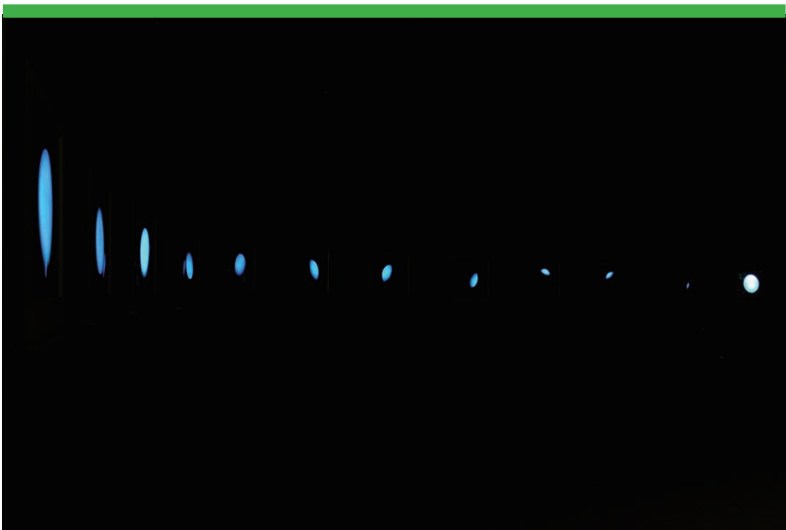
찍은 사람 백남준
찍은 때 1965년에 처음 만들고, 2000년에 다시 만듦
작품 종류 텔레비전 13대

밤하늘처럼 어두운 방 안에
13개의 텔레비전이 놓여 있어요.
화면에는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여러 모양의 달이 보여요.

그런데 이 달들은 진짜 달을 찍은 게 아니에요.
백남준이 텔레비전을 조작해서
달처럼 보이는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 달들은 움직이지도, 바뀌지도 않고
처음 만든 모양 그대로 멈춰 있어요.
진짜 달은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뀌지만
이 달들은 절대 변하지 않지요.

백남준은 멈춰 있는 달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멈춘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어요.



7 <천왕성>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91년

만든 재료 텔레비전 24대, 네온 조명이 있는 구조물

백남준은 우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와 달, 금성, 화성, 해왕성처럼

행성 이름을 붙인 작품들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천왕성을 보고 만든 거예요.

천왕성은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이예요.

색깔은 청록색이지요.

차가운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얼음 행성이라고도 불려요.

백남준이 만든 <천왕성>은

24개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상과

화려한 빛이 어우러져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요.



▶ 인공위성 : 우주에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방송 신호를 보내 주는 장치.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방송을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8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69년에 처음 만들고, 1972년에 다시 만들

만든 재료 텔레비전 2대, 카메라 2대, 조종 장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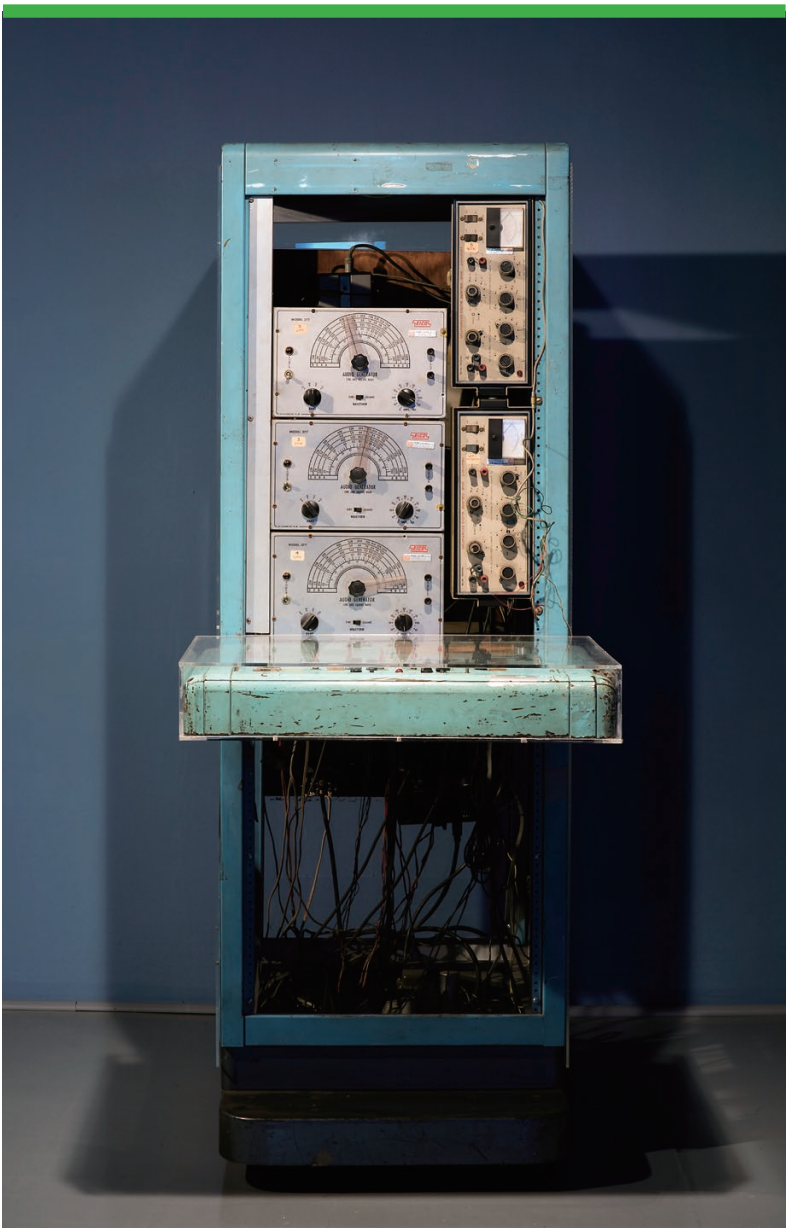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백남준과 아베 슈야가 함께 만든
특별한 영상 편집 기계예요.

백남준은 텔레비전이
그저 보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가지고 노는 기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학자**[▶]인 아베 슈야와 함께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발명했어요.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조종 장치를 만지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상의 색이나 모양을 바꾸고,
다른 영상과 합칠 수 있어요.
바뀐 모양도 바로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계이지요.

백남준도 이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영상 작품을 만들었어요.



▶ 공학자 : 과학을 공부해서 기계, 컴퓨터, 로봇 등을 만드는 사람.

9 <세 대의 카메라 참여>

- 만든 사람** 백남준
- 만든 때** 1969년에 처음 만들고, 2001년에 다시 만들
- 만든 재료** 카메라 3대, 텔레비전, 조명 등

카메라와 텔레비전으로
재미있는 색깔 그림자를 만드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는 카메라가 3대 있어요.
3대의 카메라로 찍힌 모습은
각각 빨강, 초록, 파랑 색으로 나와요.

텔레비전을 보면 이 3가지 색이 합쳐져
여러 색이 겹친 그림자처럼 보여요.

이 색깔 그림자는 흰 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카메라들은 모두 흑백 카메라예요.
흑백 카메라는 원래 색을 찍을 수 없어요.

백남준은 특별한 방법으로 텔레비전을 조작해서
흑백 영상을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검은색 원 위에 올라가, 나만의 색깔 그림자를 완성해 보세요.

10 <자석 TV>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65년에 처음 만들고, 1969년에 다시 만듦,
1963년

만든 재료 텔레비전, 자석

텔레비전 위에 자석이 놓여 있어요.

이 자석을 텔레비전에 대면
빨강, 초록, 파랑 색의 신기한 모양이 생겨요.
왜 이런 모양이 생길까요?

텔레비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빔**^{*}이 흐르고 있어요.
이 전자 빔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화면에 여러 색깔을 만들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자석을 대면
전자 빔이 자석에 이끌려 가서
화면에 신기한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백남준은 자석을 이용해
텔레비전이 색을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직접 실험할 수 있게 했어요.



자석을 텔레비전에 가까이 대 보세요.
자석을 따라 새롭게 바뀌는 화면을 감상할 수 있어요.

<자석 TV> 작품은 여러 개가 있어요.

1965년에 만들어진 <자석 TV>는 2025년 9월 14일까지 전시해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작품이 아닌 교육용 작품으로 바뀌어서 전시될 수 있어요.

1963년에 만든 <자석 TV>는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전시해요.

▶ 전자 빔 : 전기를 만드는 전자들이 빠르게 모여서 흘러가는 것.

11 〈촛불 TV〉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75년에 처음 만들고, 1999년에 다시 만들

만든 재료 초, 텔레비전 상자

〈촛불 TV〉는 오래된 텔레비전 속에
진짜 촛불을 켜 놓은 작품이에요.

백남준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텔레비전 속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텔레비전은 여러 기술이 모인 복잡한 기계예요.
텔레비전 속이 보이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 작품은 속이 다 보여서
무엇이 텔레비전을 밝히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이 텔레비전은 촛불이 다 타면
사람이 직접 새 촛불로 바꿔야 해요.
미술관에서도 매일 촛불을 바꾸고 있어요.

기술은 점점 더 빨라지고 새로워지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기술들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완성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촛불 TV〉는 2025년 7월 27일까지만 전시돼요.
2025년 8월 7일부터 2025년 10월 19일까지는 2층 전시실에서 볼 수 있어요.

12 〈TV를 위한 선〉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63년

만든 재료 텔레비전, 비디오

〈TV를 위한 선〉은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만 전시돼요.

백남준은 전시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고장 난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고장 난 텔레비전 화면에는
빛으로 된 선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백남준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옆으로 세워 전시했지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늘고 빛나는 선 하나가
고요하고 강한 느낌을 줘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왠지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13 <참여 TV>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63년에 처음 만들고, 1998년에 다시 만듦

만든 재료 텔레비전, 마이크 2대 등

<참여 TV>는 소리에 반응하는 텔레비전이에요.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면,
화면 속 선들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지요.

화면 속 선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크거나 작은 소리,
높거나 낮은 소리를 내면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요.
소리로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는 소리는
어떤 새로운 화면을 만들게 될까요?



마이크에 대고 말하거나 소리를 내 보세요.
소리에 따라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감상할 수 있어요.

14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

만든 사람 백남준

도와준 사람 머스 커닝햄, 찰스 아틀라스, 구보타 시게코

만든 때 1978년

작품 종류 영상

영상 길이 28분 45초

머스 커닝햄은 춤추는 무용가예요.

백남준은 그가 춤추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고
새로운 모습처럼 보이게 편집했어요.

영상 속에서 커닝햄은

여러 장소에 나타나기도 하고,

한 장소에 여러 명이 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커닝햄의 모습은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자유로워 보여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아기가 몸을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도 나와요.

평범한 움직임이지만,

백남준은 모두 춤처럼 보이게 편집했어요.

백남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춤일까요?”



15 〈TV 피아노〉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98년

만든 재료 피아노, 텔레비전 16대, 비디오 카메라

〈TV 피아노〉는 피아노 위에
크고 작은 텔레비전들이 쌓여 있는 작품이에요.
그 옆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피아노 건반을 찍고 있어요.

어떤 텔레비전에는
지금 피아노 건반을 찍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다른 텔레비전에서는
백남준이 예전에 찍은 영상이 나와요.

영상 속 백남준은 손가락 대신
카메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어요.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귀로 듣는 대신 눈으로 보는 연주처럼 느껴져요.

이 작품에서는 지금의 영상과 옛날 영상이
텔레비전에서 함께 흘러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이 섞인 것처럼 보여요.
마치 여러 소리가 어울려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 같아요.



16 <앨란과 앨런의 불평>

만든 사람 백남준, 구보타 시게코

만든 때 1982년

작품 종류 영상

영상 길이 27분 40초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영상 속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백남준의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인 앨런 긴스버그는 죽은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눠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백남준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합쳐서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퍼포먼스 작가* 앨란 캐프로는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현실에서는 실패하지만,

백남준의 영상 속에서는

앨란이 정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여요.

백남준은 비디오로 지나간 과거를 다시 만나게 하고,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 퍼포먼스 작가 : 몸으로 보여주는 예술을 하는 사람.

17 <피터 무어가 찍은 사진들>

찍은 사람 피터 무어

찍은 때 1960년대~1990년대

작품 종류 사진

피터 무어는 1960년에 뉴욕에서 활동한 작가예요.
그는 당시 예술가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1960년대 예술가들은 퍼포먼스 작품을 많이 했어요.
퍼포먼스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어는 이 순간들을
사진으로 오래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백남준도 무어가 찍은 예술가 중 한 명이에요.

무어의 사진 속 백남준은
자석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바꾸고,
TV 첼로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끌며 길을 걷고 있어요.

사진 속 시간은 멈춰 있지만,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잠깐의 순간이 예술이 되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18 〈TV 물고기〉

만든 사람 백남준

만든 때 1975년에 처음 만들고, 1997년에 다시 만들

만든 재료 텔레비전 24대, 어항 24개, 살아 있는 물고기 등

〈TV 물고기〉는 어항과 텔레비전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앞에 있는 어항에서는 진짜 물고기가 헤엄치고,
그 뒤에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영상이 나오지요.

텔레비전 영상에는 춤추는 사람,
하늘을 나는 비행기 같은 모습이 나와요.
어항과 영상이 겹쳐 보여서
물고기가 영상 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상 속 사람도 물고기와 함께 춤을 추고,
비행기는 물속을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과 상상이 섞여 만들어진
낯설고 새로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백남준아트센터

《전지적 백남준 시점》

전시 기간

2025년 4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운영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오후 5시까지 입장해 주세요.

쉬는 날

매주 월요일마다 쉬어요.

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미술관을 열어요.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에도 쉬어요.

이 전시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백남준아트센터

170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Nam June Paik Art Center

10 Paiknamjun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068 Korea

🖥️ njp.ggcf.kr ☎️ 031-201-8500